

제 88회 목포시의회 회의록

1. 개 의 : 단기 4291년 9월 17일 상오 11시
2. 폐 의 : 단기 4291년 9월 17일 하오 12시 45분
3. 장 소 : 목포시 의회 의사당
4. 사 회 : 의장 김 삼 성
5. 출석의원 : 재직 16명 중 출석의원 13명
결석의원 김남진, 강영락, 천철수 의원
6. 출석 공무원 : 시장 하동현 및 각 과장

7. 의사일정

◆ 보고사항

- 제 87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통과

◆ 부의안건

- 휴관관계 특별조사 위원회 조사결과 보고

8. 토의사항

◎ 제 87회 회의록 통과

- 서기 박찬대 낭독 - 이의 없음으로 통과

◎ 휴관관계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

◇김 상 태 의원

- 본 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던 제 87회 회의에서 각 소속별로 3인을 파

견하도록 결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에서는 제외하고 자유당에서 2인을 선정하였음을 여하한 이유인가 답변 하여주기 바란다.

◇김 삼 성 의장

- 우리회의의 소속별 분포가 자유 민주 양당과 무소속이 있다하나 대별하여 양당 밖에 안되는 것이다.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.

◇임 성 균 의원

- 조사단구성에 있어 의장의 지명이 공정하였다고 본다.

◇김 상 대 의원

- 조사위원 3인을 대표하여 보고하고자 한다.

김남진 의원 발언의 초점을 파악하고자

- 1) 맨 먼저 중앙산업을 방문하였다. 중앙산업은 본시 토건업 이었는데 작년 8월부터 압력관제조에 착수할 태세를 갖추었으나 92년 5월 28일에야 서울 특별시에 공급한 40본이 처녀제작이었다는 것입니다. 이 공급에 있어 한국 흙관과 경쟁입찰에 응하여 일단 이천환차로 중앙산업에 낙찰되었다 하며 당회사의 강전무의 말을 들어보면 어디까지나 실력으로써 노력하여 한국흙관보다 3할가량의 염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장담에는 우리조사단일행도 의아심이 아니 들어갈 수 없었으며 김남진 의원의 발언도 여사한 중앙산업측의 일방적인 말만듣고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이라고 아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.
- 2) 그 후 서울특별시의 토목국장과 치수계장을 만났더니 치수계장의 말에 의하면 중앙산업에서 납품한 압력관은 도저히 쓸 수 가없어서 주철관과 대체하기로 되었다하여 그 압력관을 비치한 현장에까지 가보았으나 우리와 같은 비 기술계의 안목으로 보아서도 한국흙관 제품이 우월하다고 느껴졌습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나 중앙산업 측에서 말한 한국 흙관보다 3할염가 제공한다는 실증을 잡기 위하여 그 가격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았습니다. 그 후 요행히 중앙산업의 가격표가 입수되어 한국흙관 측과 대조 비교한바 다음과 같습니다. (비교가격표 별첨)
- 3) 그 뒤에 중앙청에 들러 도시과장과 수도계장을 만났으나 이번의 사태로 인하여 별로 좋은 인상을 안주었습니다. 그리고 중앙청당국자의 언질에 의하면 중앙산업이 장래는 완전한 제품을 낼란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완전

한 제품을 못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끝으로 우리 조사단일행이 이와 같이 여러 방면을 방문한 결과와 양측의 가격비교표, 중앙청의 언질 등을 종합하여 고찰할 때 중앙산업의 과장된 선전이 전적으로 허위였다고 느껴졌습니다. 결론으로 본 의원 자신이 압력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산업의 쓸 수 없는 압력관은 안사겠다고 느껴졌으며 압력관의 단가인상도 시장단독자의로는 인상시킬 수 없고 내무부 심계원 OEC 측의 승인으로 써 이루어 졌다고 확인되었습니다.

- 4) 한국흡관 회사에 들러 가격인상이유를 들었더니 압력관 제조에 필요한 사리 유류대등의 인상과 인건비등 불가 부득이한 소요액을 2차에 걸쳐 인상요청하여 3차에야 그 인상이결정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는 시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확인되었습니다. 끝으로 금월말까지 상수도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제 수속이 완료 되어야 할 것이 이번의 사태로 말미암아 정돈상태에 있으니 시장님은 하루속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.

◇김 상 균 의원

- 방금 조사위원 측에서 보고한 단가 인상이유와 저반 집행부 측에서 답변한 인상이유의 차이점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

◇김 경 인 의원

- 조사단일행이 중앙산업에 들렀을 적에 그 회사제품의 수압시험을 하여본 일이 있는가

◇김 창 희 의원

- 김상대 의원의 보고에 단가인상은 시장 자의는 아니라고 하나 무엇 때문에 인상하였는지 필유곡절일 것이니 그 조사경위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기 바란다.

◇김 상 대 의원

- 김경인 의원이 질문한 수압시험여부는 중앙산업에 수압시험기가 아직 없고 이제야 부산에 도착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김창희 의원 질문에 단가인상에 막연한 답변이라고 하나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장 자의로 인상

할 수 없게 되어있고 내무부 심계원 OEC측에서도 엄격한 판단하에 인상인가를 하였을 것이고 타 도시에도 당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되었으니 틀림없을 것으로 보아졌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단가 인상을 시장 임의로 아니 하였다고 하지만 김남진 의원의 질의 골자인 최종공급 계약시는 수의 계약으로 앓고 중앙산업과 경쟁입찰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 조사원으로서 이의 정당성 시비여부의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.

◇김 상 대 의원

- 만약 중앙산업과 경쟁입찰에 부하여 중앙산업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 그 상품은 불완전한 것으로서 안심하고 쓸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결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견지에서 시에서 수의 계약한 것이 정당한 조치라고 느껴 집니다. 그리고 중앙산업 제품은 인공으로 수압시험을 하는 현실입니다.

◇명 남 철 의원 보충답변

- 중앙산업에서 서울특별시에 공급한 현품이 적재한 마포현장의 흡관 40본의 수압시험을 무려 15일간이나 요하였다고 한다. 그리고 중앙청당국자의 말은 현재로 보아서는 우리나라에 한국 흡관 단독회사밖에 없다고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그렇다면 김남진 의원의 발언은 전부가 사실무근의 발언을 하였다고 보아지니 그 최종 입찰시에 공고를 하였더라면 중앙산업에서도 응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로 재정법상 모순이 생기지 않겠는가

◇명 남 철 의원

- 내무부 측의 말은 중앙산업회사는 아직까지는 압력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견해이고 한국 흡관 단독회사라고 하였으니 그에 구매는 안 받을 것입니다.

◇이 춘 흙 건설과장 답변

- 김성균 의원이 질문하신 단가인상이유에 대한 차이점에 있다함은 세목적으로 열거 안한 탓입니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제 86회 의회에서 김남진 의원으로부터의 중대발언으로 인하여 그 동안 시정전반에 걸쳐 일대파문을 던졌던 것이 오늘에서야 해결된 것 같다. 5차에 공하여 행한 흙관 공급계약 때마다 상공부장관의 인증서가 첨부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야기 되었을리 만무하다고 느껴지는 것이며 또 한가지는 기대한 상수도 공사과정에 대하여 각방면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데서도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는 상수도공사 개요서 같은 것이라도 작성 배부하여 주는 것이 현명책일 것이다. 그리고 이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앙당국자측에서 어떠한 사감으로 줄열한 정책을 쓰는 경우가 생긴다면 집행부측은 이의 수습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. 또 한가지는 우리 의원들의 이번과 같은 무책임하고 무질서한 발언으로 말미암아 13만 시민대변자로서 시민전체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혹심하였느냐를 생각할 때 앞으로 모든 발언에 자중하여야 되리라고 느껴졌다.

상수도 공사 진행과정에 있어 유형무형의 손실이 지대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당시발언 했던 김남진 의원의 죄과야말로 마땅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되리라고 보아지는것이나 불행히도 동의원이 영어의 신세가 되어있으니 보류할 수밖에 없는것이니 집행부측은 매사에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부탁하는 바이다.

◇김 창 희 의원

- 1억 5천 만환의 시민 자체 부담액으로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상수도 공사진행에 있어서 이문제의 발단이 즉 김남진 의원의 발언 동기가 집행부, 시의회 측과 사전 상의라도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발단 되었을리 없다고 생각할 때 집행부 측의 책임이 더크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우리시의 행정운영을 자칫하면 합의 행정의 방향으로 흐리기 쉽다. 흙관의 가격인상 같은 것은 의결부와 상의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며 집행부 측에

서 우리의회에 어떠한 사석에서나 그 뜻을 전달하여 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성질이 아니겠느냐 집행부와 의결부의 권한이 판이한 것이니 집행부 측에 후사를 우려하여 발언하는 바이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군경원호금 부정착복사건에 대하여 저반 의회에서 시장은 의회 측의 요구라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발언하였는데 만약 피해자 측에서 이를 보류진정을 하는 경우 시장의 태도는 여하히 할 것인가

◇의장 김 삼 성

- 이 문제는 집행부 측의 자유재량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가톨릭교 구재본부에 시장의 감사장 전달차 상경결과 보고함.

◇의장 김 삼 성

- 폐회 선언함.

(하오 12시 45분)

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서명 날인함.

단기 4291년 9월 18일

시의원 조 양 순

시의원 김 상 태

작성자 서기 주 도 식

서울특별시 입찰 내역

1. 종 별 : 흙관 600m/m 175본 CP관 (하수도관)
2. 입찰일자 : 단기 4291년 6월 17일
3. 입찰자 및 가격 : ① 한국흙관 계 4,669,000환
② 중앙산업 계 4,570,000환
4. 자 재 : 시멘트 및 철근관급
차액 : 양사입찰가격 차액 99,000환

서울특별시 입찰 내역

1. 종 별 : 흙관 1,000m/m 40본 하수도용 (마포유수지배수)
2. 입찰일자 : 단기 4291년 5월 28일
3. 입찰자 및 가격 : ① 한국흙관 계 2,000,000환
② 중앙산업 계 1,988,000환
4. 자 재 : 시멘트 및 철근관급
차액 : 양사입찰가격 차액 12,000환

입찰일자 2일 연기 (이유미상)

서울특별시 흙관 입찰 가격

1. 입찰일 : 단기 4291년 9월 5일

. 관종 및 수량 : 600mCR 345본
100mCR 221본
시멘트 및 철근 관급

3. 입찰가격 : 한국홈관 15,839,000환
중앙산업 15,900,000환

한국 홈관 낙찰